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2년 제4호(통권 제31호)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 편집인 이규용 | 편집교정 정철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전승훈\*\*

## I. 서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up>1)</sup> 양육 가구의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개의 양육두수는 461만 5천 마리에서 601만 8천 마리로 증가하고, 고양이의 양육두수는 62만 9천 마리에서 258만 3천 마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2019년에 추진된 1차 계획에서는 동물 학대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

물복지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되었고, 2020~2024년 2차 계획에서는 동물 보호복지 인식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의 증가는 사료, 수의, 반려동물 용품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정부정책에서 확인되듯이 동물 보호 및 복지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 측면의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지인배 외(2017) 등 몇몇 연구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특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을 일자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 글은 전승훈 외(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승훈 외(2021)를 참고하기 바람.

\*\*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1)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처음 제안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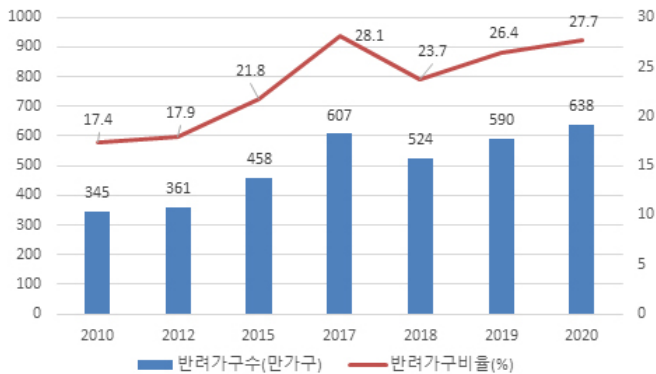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세에 대한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및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기초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II.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및 고용

###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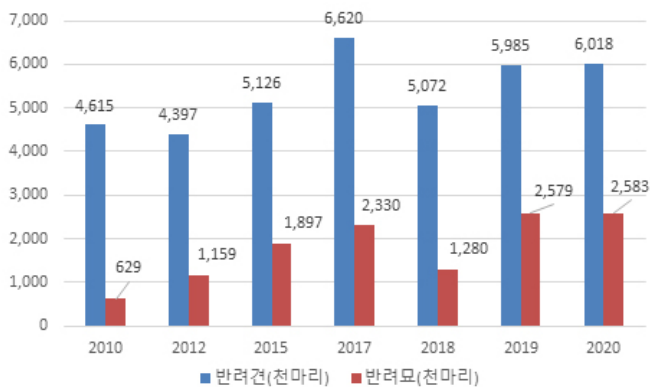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2010년 345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가구 대비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도 17.4%에서 27.7%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과

[그림 1] 반려동물 양육가구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연도.

[그림 2]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두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연도.

반려묘 양육두수는 2010~2020년 각각 461만 5천 마리에서 601만 8천 마리로, 62만 9천 마리에서 258만 3천 마리로 증가하였다. 반려묘가 반려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묘가 선호되어 반려묘 양육두수가 반려견 양육두수를 초과한 일본과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sup>

### 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 분야로 정의되며, 생산-유통-반려-보호 및 사후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산업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범위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등 8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보호 복지실태조사」는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출 등 산업 규모와 관련된 정보는 부족하고, 반려동물사료업, 수의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비중이 큰 업종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사료산업, 반려동물 수의업,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반려동물 장묘 및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표 1>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생산 및 매출 규모이다. 반려동물 사료업의 생산액은 2010년 9,530만 원에서 2019년 3억 6,560만 원으로 연평균 16.1%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에 제시된 수의업 매출액에 반려동물 관련 수의업의 비중을 곱하여 구한 반려동물 수의업의 매출액은 2010년 3억 4,390만 원에서 2019년 13억 360만 원으로 연평균 16.0% 증가하였고,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같은 기간 2억 2,500만 원에서 9억 6,810만 원으로 17.6% 증가하였다. 그리고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2010년 1,180만 원에서 2019년 1억 6,370만 원으로 연평균 3,390만 원 증가하였다. 이

2) 일본의 반려견 양육두수는 2019년 879만 7천 마리로 2015년 943만 8천 마리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고양이 양육두수는 2019년 977만 8천 마리로 2015년 927만 7천 마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KOTRA, 「일본 반려동물 사료시장동향」, 2020.9.18).

〈표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매출규모

(단위: 백만 원, %)

	사료업	수의업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2010	95.3	343.9	225.0	11.8
2011	176.3	354.9	287.4	16.8
2012	166.8	480.7	309.9	19.1
2013	179.5	579.0	358.2	25.4
2014	221.3	655.1	384.9	33.8
2015	226.2	834.6	604.5	45.7
2016	219.0	865.4	745.5	72.1
2017	258.4	1,009.4	851.7	103.5
2018	293.4	1,071.5	939.3	140.7
2019	365.6	1,303.6	968.1	163.7
연평균증가율	16.1	16.0	17.6	33.9

주: 1) 2010년과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를 사용함.

2) 사료업은 생산액, 수의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매출액 자료임.

3) 반려동물 사료생산액은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4) 반려동물 수의업은 수의업 중 반려동물 수의업 비중을 적용하여 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각 연도.

처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종사자 현황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생산 및 매출액 증가에 따라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

〈표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용현황

(단위: 백만 원, %)

	사료업	수의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2010	125	5,504	4,316	399
2011	185	6,036	4,629	626
2012	157	6,956	5,301	881
2013	141	8,161	6,054	986
2014	230	8,785	6,974	1,110
2015	194	9,763	8,311	1,395
2016	249	10,259	9,186	2,367
2017	256	11,576	9,745	3,431
2018	292	11,926	10,574	4,748
2019	364	13,892	11,501	5,673
연평균증가율	12.6	10.8	11.5	34.3

주: 1) 2010년과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를 사용함.

2) 사료업의 종사자 수는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로 조사되지 않음. 이에 산업연관표상 사료업의 취업계수를 반려동물 사료업 생산액에 곱하여 계산함.

3) 반려동물 사료생산액은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4) 반려동물 수의업은 수의업 중 반려동물 수의업 비중을 적용하여 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각 연도.

면 반려동물 사료생산 관련 종사자 수<sup>3)</sup>는 2010년 125명에서 2019년 364명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수의업 종사자 수는 2010년 5,504명에서 2019년 13,892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하였고,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의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4,316명에서 11,501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하였다. 그리고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종사자는 2010년 399명에서 2019년 5,673명으로 연평균 34.3% 증가하였다.

## III.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 전망

### 1. 고용의 양적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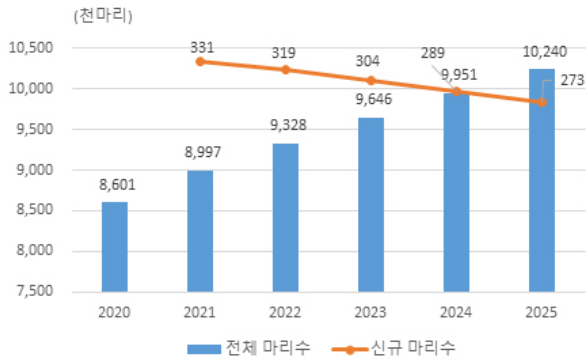
#### 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기서는 반려동물 양육마리 수가 통계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여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반려동물 양육마리 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본 평가에서는 이를 위해 Bass(1969)에 의해 발전된 확산 모형을 사용하였다. 확산모형은 시장규모가 산업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더디게 성장하고 결국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장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한편 본 평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두수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도별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제시된 반려견 수와 반려묘 수를 더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2010년, 2012년, 2015년, 2017~2020년에 이루어졌으며, 반려동물 양육 응답자 비율과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실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2020년 기간 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의 반려동물 양육두수는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에 의한 연도별 양육두수가 추세치에서 벗어나 이상치로 보이는 경우가 있

3)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생산액에 산업연관표상 사료산업의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반려동물사료업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다.

[그림 3] 반려동물 양육 규모 추정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연도.

는데, 본 연구에서는 추세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수치를 추세치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sup>4)</sup>

Bass 확산모형을 통해 2021~2025년까지 반려동물 양육두수를 추정한 결과, 개와 고양이가 양육두수는 2020년 860만 1천 마리에서 2025년 1,024만 마리로 연평균 3.5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려동물 양육두수 추정 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은 이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즉 1단계에서 반려동물 양육두수 추정치와 소득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후, 2단계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 추정치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종사자의 규모는 제II장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변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치를 사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경상 GDP 성장률을 연평균 3.3%로 추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 GDP를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GDP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별 1단계 산업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 동물 수의 증가는 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의 증가는 반려동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증가의 효과가 반려동물수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5)</sup> 2단계 종사자 수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산업 규모가 종사자 수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 추정결과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 추정결과는 <표 4>

<표 3> 반려동물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 회귀분석 결과

	사료업	수의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장묘 및 보호서비스
1단계 산업규모 추정				
소득	23.913 (27.935)	-74.927 (41.050)	-66.006 (68.388)	-29.796 (18.080)
동물 수	0.054** (0.017)	0.348*** (0.026)	0.308*** (0.043)	0.066*** (0.011)
상수항	-219704.2*** (60408.6)	-1364641.0*** (88770.97)	-1307181.0*** (147887.8)	-292051.8*** (39097.15)
R <sup>2</sup>	0.8718	0.9853	0.9495	0.9023
2단계 고용 추정				
산업규모	0.001*** (0.000)	0.008*** (0.000)	0.009*** (0.000)	0.033*** (0.004)
상수항	8.974*** (35.685)	2954.510*** (284.870)	2530.466*** (149.312)	58.034 (317.930)
R <sup>2</sup>	0.8041	0.9846	0.9938	0.8864

주: ( )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4>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정 결과

(단위: 십억 원)

	전체	사료	수의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	장묘 및 보호서비스
2019	2,800.4	365.0	1,303.6	968.1	163.7
2020	2,997.6	339.2	1,369.8	1,117.0	171.6
2021	3,245.1	360.6	1,479.5	1,214.3	190.7
2022	3,483.8	381.5	1,585.3	1,308.0	208.9
2023	3,712.4	401.9	1,686.5	1,397.8	226.2
2024	3,929.5	421.6	1,782.5	1,482.9	242.4
2025	4,133.8	440.6	1,872.8	1,562.9	257.5
연평균증가율	6.71	3.19	6.22	8.31	7.84

<표 5> 추정 모형을 이용한 고용 규모 추정 결과

(단위: 천 명)

	전체	사료	수의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	장묘 및 보호서비스
2019	31.4	0.36	13.9	11.5	5.7
2020	33.2	0.33	14.5	12.6	5.8
2021	35.7	0.35	15.4	13.5	6.4
2022	38.1	0.37	16.3	14.4	7.0
2023	40.3	0.39	17.2	15.2	7.6
2024	42.5	0.41	18.0	15.9	8.1
2025	44.5	0.43	18.8	16.7	8.6
연평균증가율	5.96	2.86	5.14	6.37	7.22

및 <표 5>와 같다. 사료산업, 수의업,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2019년 2조 8,004억 원에서 2025년 4조 1,338억 원으로

4) Bass 확산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자료 조정방법 등은 전승훈 외(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5) 2010~2019년 기간 1인당 GDP와 반려동물 수 추정치는 상관관계가 0.7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평균 6.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 보면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은 연평균 8.31%,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연평균 7.84%, 수의업은 연평균 6.22%, 사료업은 연평균 3.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 3만 1,400명 규모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 수는 2025년까지 연평균 5.96% 증가하여 4만 4,500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5,700명에서 8,600명으로 연평균 7.22% 증가하여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종사자는 1만 1,500명에서 1만 6,700명으로 연평균 6.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수의업 종사자는 1만 3,900명에서 1만 8,800명으로 연평균 5.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료업 종사자는 360명에서 430명으로 연평균 2.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2015~2019년 시행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 학대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 보호 복지정책의 기본틀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20~2024년 추진 중인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정책 범위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육동물 및 축계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확대하고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험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며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은 동물 보호복지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 보호복지 문화 내면화를 비전으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반려동물 관련 영입의 건전화,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양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제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동물 보호복지 인식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피해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관리·보호·복지의 개선을 위한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소유·취급·관리에 관한 규제 강화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위축시키는 반면 반려동물 관련 영입의 육성 및 개선, 반려동물 보호체제와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 등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규모를 구한 후, 앞서 제시한 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매출액 증가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을 추정하였다.

실태조사는 4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감소, 현상 유지(0~2% 증가), 약간 증가(2~5% 증가), 많이 증가(5% 이상 증가)로 구성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4점 척도 값의 평균은 사료산업 2.48, 수의업 2.12,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2.35,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2.28로 조사되었다. 평균값이 2.5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연관산업 사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를 대략 2% 정도로 가정하였다. 4점 척도 중 2의 값은 현상유지로 매출 0~2% 증가효과를 의미하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2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2%의 매출 증가를 모형에 반영하여 고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2019년 3만 1,400명이던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 수는 2025년 4만 5,300명으로 연평균 6.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료업은 2019년 360명에서 2025년 440명으로 연평균 3.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의업은 2019년 1만 3,900명에서 2025년 1만 9,100명으로 연평균 5.4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은 2019년 1만 1,500명에서 2025년 1만 6,900명으로 연평균 6.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2019년 5,700명에서 2025년

〈표 6〉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

	사료	수의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	장묘 및 보호서비스
1) 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2.63	2.10	2.24	2.30
2) 개물림사고 예방체계	2.31	2.00	2.15	2.23
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2.31	2.13	2.27	2.25
4) 동물 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2.63	2.32	2.44	2.27
5) 반려동물 생산 유통 환경 개선	2.56	2.23	2.59	2.26
6) 반려동물 불법 영업 근절	2.38	2.19	2.54	2.36
7) 반려동물 이력관리 강화	2.44	2.13	2.32	2.27
8)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2.81	2.13	2.61	2.43
9) 사설 보호소 관리	2.38	2.06	2.29	2.26
10) 지자체 보호센터 기준 개선	2.56	2.00	2.24	2.21
11) 유기 학대 동물 구조	2.38	2.16	2.29	2.27
12)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2.38	2.03	2.27	2.19
평균	2.48	2.12	2.35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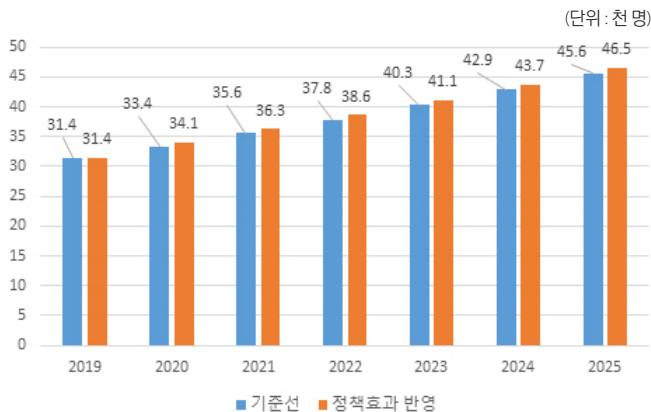
주: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표 7〉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단위: 천 명)

	전체	사료	수의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	장묘 및 보호서비스
2019	31.4	0.36	13.9	11.5	5.7
2020	33.8	0.34	14.8	12.8	5.9
2021	36.3	0.36	15.7	13.7	6.5
2022	38.7	0.38	16.6	14.6	7.1
2023	41.0	0.40	17.5	15.4	7.7
2024	43.2	0.42	18.3	16.2	8.3
2025	45.3	0.44	19.1	16.9	8.8
연평균증가율	6.26	3.17	5.44	6.67	7.57

[그림 4] 정책효과와 기준선의 비교 : 모형을 이용한 추정



8,800명으로 연평균 7.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정책이 고려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인원 전망치를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고용인원 전망치(기준선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매출을 소폭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 역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결과 정책이 고려되었을 경우 2025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 수 전망치는 4만 6,500명으로 기준선 4만 5,600명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 2. 고용의 질적 변화 분석

### 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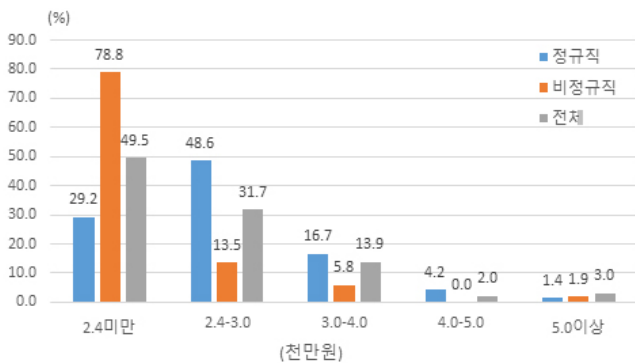
고용현황을 분석할 때 고용의 양과 함께 고용의 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용의 질을 파악할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속하는 219개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은 사업체의 규모,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주당 근로일수 및 근속기간 등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사업체 규모는 대체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사업체 수는 1만 9,285개이나 종사자 수는 2만 4,691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는 1.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업체가 1인 사업체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사업체 중 1인 사업자 비중은 51.6%로 조사되었다.

둘째,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용인원 중 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비중은 80.6%로 조사되어 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비중 63.7%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우 1인 사업장이 많고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동물사료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에 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임금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사업체 종사자의 81.2%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용형태 별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77.8%, 비정규직은 92.3%가 연봉 3천만 원 미만이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3,217

[그림 5] 임금 구간별 비중



만 원 수준이고,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전국 기준 월임금 300만 원 미만(연 기준 3,6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64.9%이다. 즉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절대적으로도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봐도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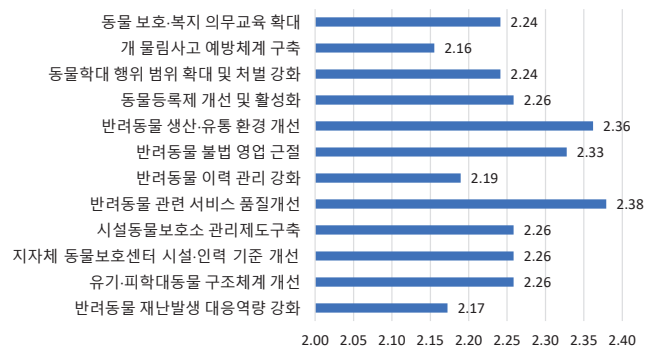
넷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은 대체로 짧았다. 주당 근로일수는 정규직 5.4일, 비정규직 4.6일로 조사되었고, 주당 근무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정규근로시간 평균은 27.6시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은 2.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의 평균은 19.3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일수가 크게 짧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0년(72개월)으로, 정규직은 8.1년(97개월), 비정규직은 2.4년(29개월)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용의 질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소규모업체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 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과 고용의 질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은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이 근로시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이 평

[그림 6] 계획 중인 정책이 근로시간·임금에 미치는 영향(4점 척도)



균 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 연관산업 사업체는 정부정책이 근로시간과 임금 등 고용의 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의 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효과로 고용의 양이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구하였다. 첫째, 산업 및 노동 측면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과 이를 관장할 전담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제 마련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산업 및 노동정책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를 명확히 하는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류의 반려동물 관련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통계 및 실태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자격제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별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산업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와 산업동물 사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국산 사료 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 등급과 인증 관리체계 구축 및 원료표시 의무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의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고 비용에 합당한 만큼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들에게 비용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부과되는 비용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용어 표준화, 수의학 질병 및 진료코드 체계 구축,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의서비스와 연관된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 및 진료의 표준화가 있지 않아 보험가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상품을 개발에 한계가 있는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용품업과 관련하여 국내 반려동물 용품산업 활성화 방안 및 국내 생산용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펫테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국내 펫테크 분야는 초기 단계로서 아직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유용하고 다양한 펫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새로운 기술의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동물 생산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려동물 연관산업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산업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업성장에 따라 노동수요 역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 및 노동환경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우 자영자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는 안전망에 대한 지원방안, 자영업자가 전직을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재창업을 원할 경우 관련 교육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률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외에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국가공인제도, 반려동물 관련 전공에 대한 전공인증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sup>6)</sup>

6) 이에 대해 본 브리프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승훈 외(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에 소개되어 있다.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본 반려동물 사료시장동향」, 2020.9.18.
- 전승훈·고명덕·박주현(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각 연도.
- Bass, F. M.(1969), "A New Product Growth for MObel Consumer Durables," *Management Science* 15(5), pp.215~227.